

혁신교육 사업별 추진단 모듬별 토론결과

1. 학교교육지원분과 A모듬

- ① 오늘은 불편한 자리, 지원청에서 오늘 회의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 ② 예산사용, 행정의 간소화, 예산의 유연성 반영
- ③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교사에게 자율성 달라. 교사를 믿어 달라.
- ④ 추진단 활성화 방안 : 정보공유, 홍보채널 필요
- ⑤ 학교에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적절한 교사가 배치됨
- ⑥ 교사에게 기회를 달라.
 - 학교에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적절한 교사가 배치됨
 - 교사 동원을 지양하고 적절한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라.
- ⑦ 지속성 보장 요망
 - 혁신교육 사업이 3년 후에도 가능한가? 기간이 보장돼야 함. 올해만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의욕이 상실될 수 있다.
- ⑧ 중복되는 사업도 있으므로 명확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서 배정해야 함
- ⑨ 민학관은 어려우므로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함

2. 학교교육지원분과 B모듬

- ① 복잡한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돼야 교사에게 반가운 사업이 될 수 있음
- ② 성북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없음.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음.
- ③ 학교, 교사에게 모든 걸 떠넘기지 말아야 함. 학부모의 협조는 필수적임. 학부모가 마을을 돕고 봉사를 좀 더 많이 해야 함. 학부모의 의식이 변하고 참여가 확대돼야 세상이 바뀔.

3. 학교교육지원분과 C모듬

- ① 문예체 협력교사 지원 ‘예술과 어울림’
 -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상 프로그램이라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진행. 앞으로 초등학생대상의 프로그램도 필요. 우리 동네 보물찾기 프로그램에 초등생도 참여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자유학기제 대상으로 운영해도 됨.
- ② 생각을 키우는 책읽기, 창의지성교육
 - 중·고생 대상 대하소설 읽기는 전집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으로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기 어려움. 학교 도서구입 예산과 연계하거나 지역도서관 자원과 연계해야 함.

- ③ 문화예술로 만나는 교과연계, ‘우리 동네 보물찾기’
 - 신청한 학교가 많아서 조정했음.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음.
- ④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 인권도시 성북
 - 추진단이 구성됐지만 아직 회의를 진행하지 못함. 향후 진행 예정.
- ⑤ 학부모·마을교사와 함께하는 기초학력신장교육
 - 마을교사들이 초등학교에서 국어, 수학 수업진행.
 - 교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이 필요
 - 중학교 수학지도에 지원이 더 필요
 - 마을교사 인력 풀의 역량강화가 필요
- ⑥ 누가 추진단인가? 추진단 활동이 소극적 참여에서 마을민주주의 방식으로 전환 하는 동력이 되기를 바램. 사업 추진의 수동적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진 단을 통해 민학관 거버넌스를 작동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음.
- ⑦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 ⑧ 교장교감 설명회는 했지만 교사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아서 아쉽다.
 - > 찾아가는 학교 설명회 필요성 강조함
- ⑨ 교육청의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 공문, 예산 배정, 사업 실행을 위해 실행 방법 에 대한 연수를 받기를 원함
- ⑩ 성북 지역은 학교를 지원하려는 마을의 노력과 열성이 대단함. 중간지원조직등 마을의 기반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학교의 관심이 필요한 상태임. 학교 운영방 식이 지시 전달식인 한계가 있으나 지역과 함께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공유해 졌으면. 같이 고민하고 자주 만나고 가까워지자.
- ⑪ 마을과 학교의 거리가 정말 멀다. 낯설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마을과 학교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 마을과 학교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사업으로만 진행되지 않기를 기대함
- ⑫ 계획과 취지를 알고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학교의 일년계획이 완성된 후에 추가되는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 오늘과 같은 워 크숍은 3월초에 진행되어야 함

4. 청소년활동 지원분과 A모듬

- ① 마을에서 길을 찾다 ‘꿈틀꿈틀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음. 자치활동으로 민주 주의를 실천해오는 이미 예산이 집행되어 추진단의 역할이 모호해짐.
- ② 대학생과 청소년, 동아리로 만나다 ‘성북 대청마루’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 고 상향식 의사결정이 됐으면 함.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

- ③ 하향식 전달 거부하며 학교(학생,교사), 학부모, 교육청, 구청 의견 수렴 요망
- ④ 현장의 의견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 모두가 자발적 참여가 중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주체가 되는 혁신교육

5. 청소년활동 지원분과 B모듬

- ①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3개에는 교사가 없고 2개는 학생이 없다. 학생, 교사에게 좀 더 다가가지 못해 성북구 특화프로그램의 좋은 아이템이 부족
- ②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은 동아리가 많고 자치와 진로가 약간 있고 봉사는 전무. 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이 골고루 배치되지 못함
- ③ 초중고의 연계가 어려움. 워크숍을 3월 초에 했더라면 학생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었음
- ④ 공문에 내용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했다면 자치활동, 동아리 담당자가 참여했을 것임
- ⑤ 역사 동아리가 많음. 성북구에는 대사관과 대사관저가 많으므로 글로벌 교육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이 필요.
- ⑥ 간송미술관의 경우 관내 학생들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함
- ⑦ 학교 현장 의견이 반영되는 교육 특화 사업을 마련해야 함

6. 마을-학교 연계분과 B모듬

- ① 시행착오 있지만 좋은 경험이다.
- ② 교사들이 업무과중으로 힘들. 예산 집행 시 코디가 중간에서 지원을 해야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음
- ③ 추진단이 학교로 찾아가야 혁신교육에 대한 정보가 확대됨.
- ③ 학부모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와 마을의 연계 필요, 학교-마을 결연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자료와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야 함.
- ④ 사업추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 ⑤ 학부모 동아리에서 학부모가 행복해지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고 운영해야 함

6. 마을-학교 연계분과 A모듬

- ① 추진단 각 분과별 일정을 맞춰주고 구청과 교육청에서 공문이 산발적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움.

- ② 유사한 사업을 통합 후 목적이 분명한 사업부터 추진했으면 좋겠음.
- ③ 집행에서 결과보고를 간략하게 하는 행정절차 필요
- ④ 열정이 느껴져서 좋았다. 한편으로는 따라가기 힘들다.
- ⑤ 교장, 교감, 담당선생님들 등 윗분들과의 혁신교육에 대한 공감소통이 깊이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
- ⑥ 추진단 참여를 통해 정보공유와 다양한 학교 참여필요(일부학교에 집중)
- ⑦ 친절한 공문 요망
- ⑧ 추진단 활동하면서 혁신하는 성북,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만들어가는 추진단,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추진단 ! 감동입니다. 파이팅 !!

7. 혁신소통분과

- ①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었다.
- ② 혁신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해야한다.
- ③ 혁신교육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함.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토론회와 교육으로 혁신교육을 제대로 알려야 함.
- ④ 모니터링단 구성을 할 계획이며 추진단에서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 ⑤ 아이들도 동참해서 소통이 제대로 돼야 함